



문서번호 DHSKO20200101-1

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

연구윤리규정

1. 총칙

1) (명칭, 목적)

- ① 이 규정은 한국디자인사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.
- ② 이 규정은 학회가 운영하는 학술대회 및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, 투고, 게재를 원하는 논문(비 논문 포함) 저자, 심사위원,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기준, 윤리 위반 행위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) (규정 준수)

- ① 학술지 게재에 관련된 모든 저자, 심사위원, 편집위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특히 저자는 2장에 제시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② 게재를 원하는 저자는 이 규정의 준수 의무에 동의한 후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.

3) (저작권 및 저작권 활용)

- ① 투고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 본인에게 있다.
- ② 투고 원고의 저작권 활용 권한은 학회에 귀속된다.
- ③ 저자는 연구 결과의 중복 활용 등 연구 윤리 준수 측면에서 투고 원고의 활용을 학회와 의논해야 한다.

2. 저자 윤리 규정

3) (범위)

- ①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작성 및 게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·부당한 저자 표시행위,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.
- ② 연구부정행위의 여·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.

4) (위조 및 변조)

-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변조는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


5) (표절)

- ① 표절은 국·내외 학술지, 학술대회발표논문, 연구보고서, 석·박사학위논문, 서적, 잡지,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타인의 학문적 아이디어, 견해, 표현,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표절은 인용 없이 기술된 부분이 일정 분량 이상이고, 이미 발표된 내용과 표현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된다.
- ③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(자기 표절)에도 적용된다.
- ④ 다만,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.

6) (부당한 저자 표기)

- ①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·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저자는 아래 항목에 준하는 원고 작성에 상당히 기여한 자료 한정해야 하며, 그러한 기여가 확인되는 저자는 모두 참여(공동) 저자로 표시되어야 한다.
 - 가) 작업의 개념 또는 설계, 또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의 획득, 분석 또는 해석자
 - 나) 중요한 학문적 내용을 위해 작업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자
 - 다) 출간을 위해 모든 작업이 완료된 원고의 최종 승인자
- ③ 고신저자는 모든 참여(공동)저자가 제출된 원고를 확인하고 승인했으며 출간을 위한 제출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한다.

7) (저자의 의무)

- ① 작업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: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히 조사, 해결되도록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
- ② 데이터의 접근과 보존: 제출된 원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편집 검토를 위해 제공 및 보관
- ③ 출간물의 기본 오류: 제출된 원고나 출간물의 오류나 부정확성을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보고
- ④ 이해 관계의 공개: 논문의 결과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적이거나 실질적인 이해 상충의 공개

8) (중복 게재)

- ① 중복 게재는 국내·외를 막론하고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물(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)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, 발표,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된 연구물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·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③ 석·박사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내용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·보완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.

9) (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)

- ① 부당한 인용 및 참고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원고 작성에 참고한 학술 자료(연구논문, 학회발표논문, 저서, 번역서, 신문 기사, 홈페이지 게시 내용 및 다운로드 문서, 그림, 영상, 소리 등)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정보를 표기하거나 임의로 정보를 변경 혹은 생략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,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인용과 참고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.



- ③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도 그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.
- ④ 인용 및 참고 표시는 각주(footnote), 미주(endnote) 혹은 참고문헌(references)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, 투고 규정 내 지정된 형식에 맞추어 표시한다.
- ⑤ 그림과 표를 포함한 사진, 도면, 이미지, 다이어그램 등 원고 내 사용하는 관련 자료는 저작권 확인을 거쳐야 한다.
- ⑥ 투고자(공동저자 포함)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그림, 표 및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, 학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,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.
- ⑥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, 학술적 사용 목적으로 해당 자료의 저작권 양도 및 사용에 관한 문서를 첨부하고,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표기한다. (저작권 양도 및 사용 허가서 양식 참조)

3. 심사위원 윤리규정

10) (성실 평가)

-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자신이 평가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.

11) (공정 평가)

- ① 심사위원은 투고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.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투고문을 탈락시키거나,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.

12) (비밀 유지)

-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투고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 편집위원회의 허락 없이 투고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.
- ② 투고문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
4. 편집위원 윤리규정

13) (공정)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저자의 국적, 성별, 나이,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투고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
14) (심사위원 선정)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,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15) (비밀 유지)

- ① 편집위원은 투고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투고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.
-



5. 규정위반심사 및 처리

16) (회원 의무)

- ①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회원은 이 규정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해야 한다.

16 조 (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)

-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논문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, 이사회 의결을 거쳐, 회장이 위촉한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-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회에서 선임, 의결하고,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반한 의혹,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.
-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.
-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판정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.
-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을 한 회원에 대해 학회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.

17 조 (연구윤리규정 위반 심사)

- ① 연구부정행위 등 이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에 앞서 상정된 사건에 대해 해당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-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/3이상 출석, 출석위원 2/3이상 표결 동의로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.
-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심사 후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.
- ⑤ 해당 저자나 심사위원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내용이나 사유에 대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⑥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의 이의가 문서로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해야 한다. 재심사는 첫 번째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.
- ⑦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저자 및 심사위원은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다시 심사하여 최종 의결한다. 이 때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심사를 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.
-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 사항을 제보한 자 및 규정 위반으로 판정받은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18) (벌칙)

- ① 연구윤리위원회가 저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최종 의결하여 통보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문의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절차를 즉시 중단한다.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, 취소된 세재문은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.
- ②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은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학술대회 및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.
- ③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이 규정의 위반으로 판정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자격이 취소되고 연구윤리위원회 의결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한다.
- ④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 운영위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 경고,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 또한,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.



부칙

19) (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정)

이 연구윤리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” [시행 2018. 7. 17.] [교육부훈령 제263호, 2018. 7. 17., 일부개정]을 따른다.

20) (규정 개폐)

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폐할 수 있다.

21) (규정 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2022년 1월 1일 한국디자인사학회

